AUTHOR 이근삼

TITLE 칼빈과 설교

IN 개혁주의
21호 (6, 1967): 4-8.

권두언

인간교육은 하나님의 요구

"교육은 성장하는 인간인격을 환경에 적응시키므로 인격의 완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비기독교 교육은 그 "환경"이 하나님을 제외한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그 "환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해석대로 적응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인격적이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의미를 주시며 모든 사실들을 해석하신다. 그러므로 교육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해석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진, 선, 미(眞, 善, 美)의 원리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의 본질을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포함한 모든 창조는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창조를 해석하시는 근원이시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절대적 권위가 되시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만 우리의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의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완성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의 첫 의무는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이가 장성해 가면 부모는 학교, 교회, 국가 등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근본 교육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존중 하는 부모가 그들의 근본 의무를 다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 원만한 가정 생활, 자녀에 대한 종교 교육적 열심이 자녀들의 완전한 인격 양성에 얼마나 큰 자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은 부모들이 모인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 교회의 후일을 위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집논단

칼 빈 과 설 교

이 근 삼

1. 칼빈의 설교생활(說敎生活)

칼빈(1509. 7. 10 生~15[illegible]. 5. 27 死)은 1536年 27세에 정식으로 제네바에서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설교자로서 사명에 새로운 광명과 함께 결심하게 된 것은 슈트라스 불그(Strassburg)에서 1538년에 비로소 설교자로서의 그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다. 3년후 1541년에 제네바에 돌아 와서 본격적으로 설교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도 열심으로 설교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 대 설교자에게도 권태증을 느끼고 감격없는 교회생활에 빠져 갔다. 칼빈은 자기의 정력을 다 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결과는 좀처럼 얻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1554~55년에는 칼빈은 퍽 피곤하여져서 "매일 하는 설교가 이렇게도 결실이 적은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다. 칼빈의 청중들은 그를 많이 괴롭혔다. 제네바에서는 칼빈에 대한 설교에 감격이 없었다. 이런 형편을 시정하려는 시 당국이 엄격한 종교행정을 베풀면 베풀수록 인심은 설교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예배는 애기 우는 소리, 사담, 장난, 졸기 등으로 방해되고 설교도 하기 어려웠다. 어떤 때는 주정뱅이의 난폭도 있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런 난폭 속에 나는 단 사흘도 살 기싫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기침과 신병의 고통을 당해 가면서 설교에 전력했다.

제네바 시 당국은 복음적 교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나 칼빈의 활동에 반드시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개혁 교회 설교는 성경 강해가 주였다. 칼빈은 이것을 중요시 했다. 그러나 성경 강해는 교회력(敎會曆)과는 무관하였다. 그런데 특별한 설교, 예컨대 전승 감사라 든지 불란서의 신교도들이 당하는 박해에 동정과 격려를 주제로 하는 것은 제네바 시의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칼빈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설교의 출판도 허가를 받아서 하였다. 칼빈도 다른 교직자들과 같이 제네바 시의 명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서약을 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칼빈을 격려하고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 봉사하여 준 이들은 불란서에서 박해를 피해 온 외국인들 (칼빈의 동국인)이었다. 저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불란서를 떠나 제네바에 와서 칼빈을 존경하였고 칼빈은 그들을 믿음직하게 생각하였다.

이들은 칼빈의 설교를 속기할 사람을 찾아서 기록하게 하였다. 그래서 1549~1560년 11월 3일까지 칼빈의 설교를 속기한 사람은 데니스 라게니에(Denis Raguenier) 였다. 그 간에 혹 빠진 일도 있으나 보존된 설교는 2,025편에 달한다. 제네바에 성 비에레(St. Pierre), 라·막다린(La Magdaline) 성 젤바(St. Gervais) 등 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규정에 보면 이 교회들은 아침, 낮, 오후, 세 차례 씩 설교했다(낮에는 아이들의 요리 문답 공부).

부활절부터 10월 초까지는 아침에 6~7시, 겨울에는 7~8시에 모였다. 칼빈은 주로 성 비에레(St. Pierre)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주일 아침과 오후, 평일에는 월, 수, 금 요일에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요리 문답을 가르쳤다. 칼빈의 설교는 연속적 성경 강해인데 주일 아침에는 신약을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월, 수, 금요일에는 구약을 강해했다. 이렇게 하여 속기는 159편, 신명기는 200편에 달하였다. 이런 설교가 속기 되어 2,025편이 제네바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칼빈은 자기 설교를 출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설교 중 네 편이 출판 되었는데 논문 대신 발표된 것이다. 그외에 1557년에 십계명에 관한 것과, 1558년에 바디우스(C. Badius)가 편집한 11편이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공개 됐다.

칼빈이 죽은 후 종교 개혁 저작집(Corpus Reformatorum)이 편집될 때 칼빈의 설교 원고 중에서 구약 571편, 신약 297편, 합 868편이 채록된 것이다.

2. 칼빈의 설교 문체 (說敎文体)

칼빈의 설교는 주로 성경 강해라는 것은 미리 말했다. 그의 설교는 문장이 미문(美文)은 아니라고 한다. 그의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거기 신앙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칼빈의 설교의 노력은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말씀외의 모든 매력적인 것은 다 포기하려고 하였다. 칼빈은 확신하기를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접하고 점검(点檢)되고 우리 사상과 감정의 해부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사람의 마음 속에 전달하여 역사하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과제였다. 롭슈타인(Lobstein)은 "칼빈과 몽떼뉴"란 논문에 16세기의 불란서 사상사를 장식한 2대 인물을 비교할 때, 칼빈의 그런 면을 밝혀 주고 있다. 위의 두 사람은 동시대 동국인이면서 아주 대조적인 두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몽떼뉴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나"로서 시종하였다. "나는 나를 알리는 것에 주리고 있다. 독자여, 나의 책의 자료는 나 자신이다."

이와 반대로 칼빈은 그 많은 설교와 주석 중에 자기에 관한 말은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고 그것도 자기 찬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원에서 사용한 것뿐이다. 그런 때에도 자기에 관설하는 것은 극력 피하였다.

그의 설교는 말씀이 큰 압력을 가지고 박력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설교의 근거였고, 그 외의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그의 문장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불어의 아버지(佛語의 祖上)"이라고 불리우는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의 문장은 결코 추한 문장이 아니다. "불어의 아버지"라 불리울만한 문장인 것이다. 간소한 필치, 명쾌한 논리, 맑은 문장, 그리고 실제적 문장, 숨어 있는 압도적 권위와 고귀한 정신 등을 그 문장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 그 이유는……" 등으로 신앙의 논리가 정연하게 전개되어 피상적 독자에게는 읽기 어려울지 모르나 그 문장에 익숙하게 되면 흥미진진 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특징은 독설 비슷한 과격한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사정에서 온 것인데, 그 때의 언어가 소박하고 강직한 탓도 있으나 당시 로마 카토릭 교회가 신교에 퍼부은 악담이 그 원인이 될만한 것이다. 더우기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는 자에게 창조주, 구주를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한 대적자들에게 극력 반대하는 말을 썼다. 칼빈은 성실한 노를 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과격한 말은 주로 로마 카토릭 교회와 재세례파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목회자인 칼빈은 당시 강대한 세력인 로마 카토릭 교회에서 겨우 탈출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설교에 있어서 복음 진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엄격한 비판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을 해주어야만 했던 목사의 노고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것 보다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열심과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그로 하여금 과격한 말도 하게 한 것이

다.

칼빈의 설교의 특징의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말씀을 설명적으로 바꾸어 말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시역(試譯)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귀(聖句)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의 순서를 바꾸어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것은 그가 성경 원어에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어의 순서를 따라 해석 설명 하였기 때문이다.

4. 칼빈의 설교본질

1. 설교(說敎)와 교회(敎會)

칼·홀(Karl Holl)은 그의 저서 "존·칼빈" (Johannes Calvin)에서 칼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루터의 설교는 독일 밖에서는 카토릭 교회에서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 당시 그런 태도를 가졌던 신교 정치가들이 많았다. 그런 때에 칼빈이 일어나서 루터의 사후에 전 신교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신교에게는 그런 다행한 일이 없었다. 그 이유는 칼빈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요구하였는데 로마 카토릭 교회에서의 분리의 결단과 신교 교회의 조직이었다. 그는 참으로 종교 개혁을 구출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조직은 곧 교회 조직이었다. "잘 정비된 교회"라는 말을 그는 많이 사용 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그의 필생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칼빈의 설교를 듣는 무리는 대부분이 로마 카토릭 교회의 압력에 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것을 이해한다 하여도 그들의 실생활은 얼마나 신앙대로 사느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사람, 주기도문을 주문과 같이 생각하고 암송하는 사람, 미사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회중으로 하는 교회의 설교였으므로 칼빈의 설교는 미사에 대신하는 설교라야 했다. 미사에서 기대하는 것을 설교로서 채워주어야 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동시에 공기도와 성례를 합해서 한꺼번에 설교를 했다.

"잘 정비된 교회"의 규정과 훈련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 출석을 강조하였다.

비록 그의 설교가 성경 강해였다 할지라도 지적이고, 신앙 교육적이고, 교리적이었다. 칼빈 자신이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목사 시험에도 임격하게 하였다. 먼저 사상적으로 신앙이 개혁적으로 올바르고 성경 지식에 풍부한 것과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설득력과 설교 능력과 요리 문답, 그리고 구술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적합한 신앙 생활을 하는 여부를 다루었다. 이렇게 설교자는 교회가 세우는 설교자라야만 하였다. 교회가 그 자격을 심사하고 교회의 투표로 교회를 위해서 취임 하였다. 이렇게 부름 받은 목사는 기숙하여 금요일마다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설교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잘 정비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서약, 요리문답 교수, 목회, 설교가 행해졌다.

칼빈의 설교는 목회의 노고에서 빚어 나온 것이었다. 교회의 규정에 의하면 목사~설교자의 심방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시 되어 있다. 칼·홀(Karl Holl)의 말과 같이 칼빈에게는 이런 목회 즉 "영혼을 돌보는일(Seellsorge)"이 그의 승리의 원인이었다. 칼빈이 그의 설교를 출판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기 설교는 자기 교회의 회중만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설교는 자기목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고 한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그의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설교의 용어도 쉬운 것을 택했으며 또 속어도 사용했다. 이것은 대중적(大衆的)이라기 보다도 목회적(牧會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 규정에 목사직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교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장려하고 책망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가 결코 일방적 말씀 전파의 공식화가 되거나 회중과 분리된 독어식(獨語式)이 되어서는 안되고 회중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대화식(對話式)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온순한 사람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이고 둘째는 이리와 도적을 쫓는 노성(怒聲)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칼빈은 회중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고 지도하기보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자기도 그들 중의 한 사람 됨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칼빈은 목자(牧者)인 동시에 설교자였다.

2. 성경(聖經)과 설교(說敎)

성경의 계속적 강해가 곧 그의 설교였다. 설교에 나타난 그의 성경관을 보면 설교자와 설교와 성경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칼빈은 그의 회개의 중심적 경험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것이다.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중요시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성경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 말씀이 된다고 하였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연구에 진지하게 골몰하였다. 그래서 루이스·가우마스(Louis Goumaz)라는 사람은 "개혁자 칼빈을 이해하려면 주석자 칼빈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서 먼저는 신자의 구원에 필요한 것에 관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주고(說明), 그 다음으로는 그 교훈이 사람의 심령에 생생하게 접촉하도록 해주어야 한다(摘用). 이것은 실천적, 행위적, 신앙 고백적 적용인데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복종이 생긴다. 설교자의 임무는 성령이 그 설교자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재주를 쓰지 않아도 성령의 기교(技巧)가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위하여 기도로서 준비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